

제철 맞은 벌교 꼬막 맛보러 오세요

27~29일 벌교읍 천변서 꼬막 축제 주민 참여 다양한 공연·체험행사 태백산맥문학관 15주년 행사도

전국 꼬막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주산지 보성 벌교에서 오는 27~29일 '벌교 꼬막 축제'가 열린다. 보성군은 이 기간 벌교읍 천변 일원에서 '9회 보성 벌교 꼬막 축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제는 '정경 갯벌과 꼬막! 그리고 문화의 만남'을 내걸고 사흘간 진행된다.

벌교 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1호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보성의 대표 특산물이다.

보성 벌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화소설 '태백산맥' 곳곳에서도 벌교 꼬막에 대한 묘사를 만날 수 있다.

벌교천을 따라 줄지어 있는 식당에서는 꼬막무침, 꼬막전, 꼬막탕수육 등 다양한 꼬막 요리를 즐길 수 있다.

꼬막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있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된다.

첫날에는 벌교 길놀이부터 시작으로 2000인분 꼬막 비빔밥 만들기의 장관이 펼쳐진다.

꼬막 무료 시식회와 진흥제, 22회 벌교읍민의 날 기념식 등이 진행되며 불거리, 즐길 거리를 충족시킨다.

둘째 날에는 태백산맥문학관 15주년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조정래 작가는 소설 태백산맥(10권) 전권을 필사해 기증한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보성군 벌교읍 천변 일원에서 오는 27~29일 사흘간 '9회 보성 벌교 꼬막 축제'가 열린다. 지난 축제에서 2000인분 꼬막 비빔밥을 만드는 모습. <보성군 제공>

조 작가와 유성호 함양대학교 교수가 함께하는 북콘서트와 '태백산맥문학관 톨아보기'도 이어진다.

같은 날 축제장에서는 '황금 꼬막을 찾아라', 채동선 실내합창단 공연, 바퀴 달린 날배 타기 대회 등도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소설 태백산맥 주 무대 문학기행을 떠난다. 선착순 신청한 20명은 조 작가와 관공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소설의 무대인 현부자네 집과 김범우의 집 등을 둘러본다. 청소년 경연대회와 어울림 한마당 등 부대 행사도 펼쳐진다.

꼬막의 주 무대인 보성 벌교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청정 해역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여자의 갯벌은 모래 황토가 섞이지 않고 차진 진흙 필로 이뤄져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벌교 꼬막은 다른 지역의 꼬막보다도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보성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보성군이 지역민과 함께 준비한 가을 대표 축제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벌교꼬막 축제에서 보성의 멋과 맛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복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5번째 도전

문체부 13곳 선정 200억원 지원

문화예술재단 추진 재도전 준비

여수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다시 도전장을 낸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는 균형발전을 이끌고 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문체부는 전국 13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2019년 공모를 시작한 뒤 4차례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여수시는 빈약한 시민 협치 구조와 문화적 선도(엔지니어)사업이 부족한 점을 유지 실패 원인으로 분석했다.

여수시는 문화 기반사업 구심점 역할을 할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문화도시 재도전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7월에는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계획 수립



여수시가 지역 문화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재도전한다. 각종 문화·관광 부문 행사가 연중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덕충동) 전경. <여수시 제공>

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8월에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문화창조, 문화누림, 문화혁신, 사람연대, 정책연대, 지역연대 등 '대한민국 6대 추진전략'에 맞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추진단'을 정비하고, 여수시 20개 부서가 동참하는 '여수문화도시 추진 행정협의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계획을 공고했고, 오는 11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문화도시로 지정된 24곳을 제외한 제주권역 1곳과 6개의 권역별 2곳 등 총 13곳 내외를 선정한다. 이후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내년 12월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국비·지방비 각 50% 비중으로 200억원의 사업비를 4년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의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성과 관리 등 행정적 지원도 받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 택시 기본요금 4300원으로 1000원 인상

다음달부터...거리요금도 올려

다음 달부터 순천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이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순천시는 11월부터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중형 기준 기본 운임을 1000원(30.3%)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은 다음 달부터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이 된다. 순천 택시 요금이 오른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거리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적용 거리가 짧아진다.

시간 운임은 시간당 15km 이하 운행 때는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적용시간이 단축된다.

읍면지역 등 복합할증 지역으로 운행 때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승차지점부터 할증이 적용된다. 할증률은 기존 35%에서 40%로 올랐다.

해당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 요금을

물리는 시계 외 할증은 별도 부과 없이 복합할증과 함께 적용된다.

심야할증은 자정~새벽 4시 적용과 할증률 20%로, 이전과 같게 유지한다.

이로써 전체적인 인상은 19.75%로 집계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 택시조합이 지난해 전남도에 운임 인상을 건의해 추진됐다.

1년여 검증을 거쳐 제안된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안)을 순천시 택시 운임·요금 조정 간담회에서 시행 시기를 결정해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오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택시업계가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상 당일부터 순천시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차례대로 진행되며 조정이 안 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택시요금 조건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 거금도 적대봉 22.7km 생태탐방로 조성

국가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고흥 거금도 적대봉이 올해 환경부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

고흥군은 금산면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를 포함한 전국 7곳이 '2024년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흥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금산면 고금 적대봉 22.7km 구간에서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펼친다.

국비 25억원 등 사업비 50억원이 들어간다. 국가 생태탐방로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하고 탐방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복원관리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비 802억원 등 총 사업비 1604억원을 들여 90개 사업 대상지에

2317km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1개 시·군·구가 23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환경부의 사전검토·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이 최종 선정됐다.

거금도 적대봉은 사전검토·현장평가에서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필요성과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생태자원 등 적합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흥군은 육상·수생·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거금도 적대봉의 13.2km 구간이 전망대, 갑판길, 쉼터, 편의시설 등 명품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길들의 체계적인 정비·유지관리를 통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거금도 적대봉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국가 생태탐방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15종 추가

구례군이 산수유 잼·담금주 꾸러미 등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15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총 30종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례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15종의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했다.

지난 13일에는 공급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농특산품 9종과 공예품 2종, 관광·서비스 4종 등 15종이다.

농특산 답례품에는 흑돼지·한우 꾸러미와 산수유 잼·담금주 꾸러미, 꿀·화분 꾸러미, 매실 피클, 참기름·들기름, 허브차, 초피 가공식품, 조청 등이 포함됐다. 도자기, 부채 등 공예품 2종과 별초 대항, 화재 안전 꾸러미, 도자기 체험, 부채 만들기 체험 등 관광·서비스 4종도 이름을 올렸다.

구례군은 기존 제공해온 산수유 가공식품, 산나물, 우리밀 꾸러미 등 모두 30가지 답례품을 제공하게 됐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lovegohyang.go.kr)의 구례군 답례품 물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농업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만의 특별한 답례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공급업체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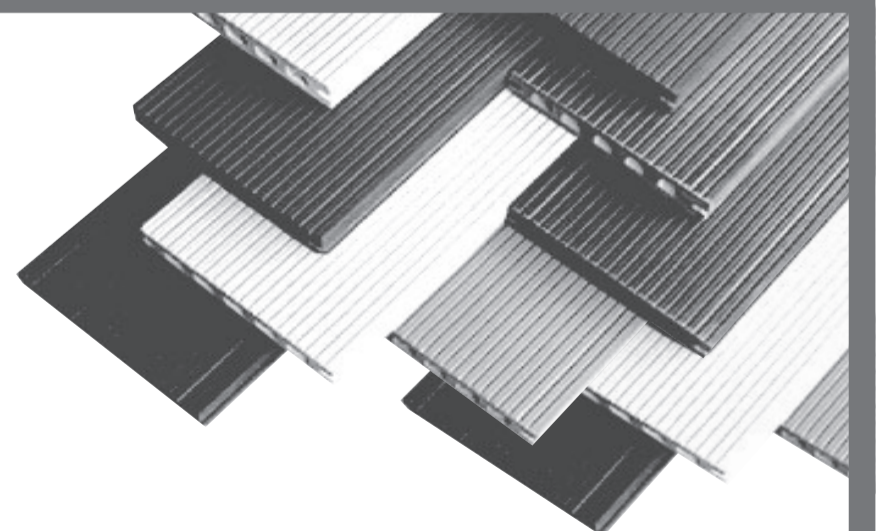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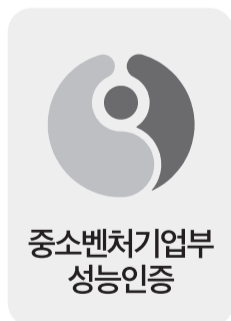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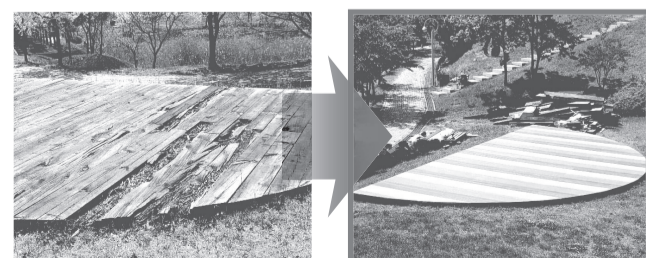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